

전기 팔수록 손해?...국민 절반 “전기요금 비싸다”

‘전기요금 소비자 인식지수’ 공개... “주택용 요금 내려야한다” 44.3% 한전 역마진 해소·5개월 연속 영업익에도 인상 움직임 ‘부정적’ 인식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5분기 연속 영업 이익을 올렸음에도 30조가 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지만 소비자들의 부정적 기류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별다른 혁신자 구책 없이 이른바 ‘땅집고 헤엄치기’ 전기요금 인상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전기요금 소비자 인식지수 측정 연구’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44.3%의 응답자는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많이 내려야 한다”는 12.9%, “조금 내려야 한다”는 31.4%로 집계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2~3월 주택용 전기소비자 1034명, 일반용 전기소비자 1051명, 산업용 제조업 계약고객 162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다. 현행 유지를 택한 응답자도 42.0%였다. 전기요금이 다른 공공요금 대비 ‘비싸다’고 인식한 소비자도 많았다.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48.7%에 달했지만, 수도요금(23.1%)은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대중요금 역시 26.8%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용도별로도 농사용을 제외한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 모든 분야에서 전기요금 인하 응답이 인상 응답보다 비중이 높았다.

지난 3년간 에너지 원자재 값 폭등 당시 물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들어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전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이 불편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선불리 요금 인상에 나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전과 정부는 가정용 등 전기요금 인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한전의 막대한 누적적자와 이에 따른 이자 감당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한전은 지난 3년간 에너지 원자재 값 폭등 당시 물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전은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누적적자 37조 6906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까지도 한전의 누적적자는 40조 원 규모를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고, 영업이익으로 전환한 뒤 올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늘려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인상하고,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면서도 자사 재무 개선을 위해 잇따라 전기요금 인상이나 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도 보인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자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전기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된 만큼, 향후 전기 요금 인상 과정에서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모두 반영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나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영광 불갑저수지 홍수 조절기능 확대

농어촌공사, 치수능력 확대사업 완료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8일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 준공식을 열고 전남지역 내 대규모 저수지에 보조 여수로 등 치수능력확대사업을 마무리했다.

치수능력확대사업은 유역면적 2500ha, 저수용량 500만 t 이상 대규모 저수지에 보조 여수로 등을 설치해 홍수 발생시 월류, 붕괴 등에 대한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불갑저수지는 지난 1926년 준공됐으며, 전남의 4대호(장성·나주·담양·광주호) 다음으로 규모가

큰 농업용 저수지로, 유역면적 4680ha, 총저수량 1740만 t 규모로 영광 전체 농경지의 절반 이상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여름철 폭우로 인한 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731억원을 투입해 40m 길이의 물넘이 1개를 추가 설치하고 비상수문 2련, 방류수로 393m 및 관리시설 등을 조성했다.

이번에 새로 조성된 물넘이로는 기존 선형 물넘이 대비 방류 능력이 3배 이상 높은 ‘피아노 건반형’ 방식 적용했다. 이번 준공 이후 불갑저수지는 초당 438 t에서 최대 1706 t의 물을 방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홍수예방능력 역시 기존보다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9일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와 젊은 직원 35명이 ‘청렴소통 간담회’ 참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KPS 제공>

한전KPS, 상임감사와 함께하는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안전문화 정착 매뉴얼 등 공유

한전KPS는 19일 임원진과 MZ세대 직원 간 소통을 위한 ‘상임감사와 함께하는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성규 상임감사가 MZ세대 직원들과 만나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청렴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상임감사와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35명의 MZ세대 직원들이 참여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매뉴얼 정비 및 제도 효율화 방안,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발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직원들과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더 많이 마련하고 MZ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청렴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는 올해를 ‘청렴혁신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임감사 직할 청렴혁신 추진단’, ‘노사합동 청렴캠페인’, ‘나주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뮤지컬’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데이터·AI 활용 물가 예측 경진대회 시상

시계열 데이터 분석 활용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 예측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데이터·AI를 활용한 물가 예측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 예측 모델의 혁신성 평가 및 발전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aT,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동 진행했다.

대회 예선에는 551개 팀, 1400여명이 참가했고,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독창적인 딥러닝과 부스팅 모델을 선보였다. 이들은 특히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 예측에 성과를 냈다.

최종심사 결과 대상은 ‘주역팀’이 수상, 농식

품부 장관상과 상금 1500만 원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에는 가격 변동성 패턴 특성을 활용한 ‘자칼팀’이 선정됐다. 자칼팀은 디지털플랫폼위원장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했다.

이밖에도 우수상에 선정된 ‘김스턴사이어스팀’, ‘나서스팀’, ‘잭맵포션팀’은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인공지능학회장상과 상금 300만 원을, 장려상을 수상한 ‘푸룻푸룻팀’ 등 5개 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aT는 향후 최종 입상한 예측 모형들을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 누리집의 가격 예측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